

전남 묵은 쌀 7만7천t 쌓였는데… 수확철 쌀 소비 ‘비상’

가공식품 개발 등 대량 소비처 발굴 시급

본격적인 벼 수확철을 앞두고 ‘쌀 소비’에 비상이 걸렸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다 대북 식량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수만 t의 전남 쌀이 아직도 농협 창고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벼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쌀 재고량이 빠르게 소진되지 않을 경우 수매할 벼 보관은 물론 쌀 값 폭락과 함께 올해 벼 수매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 확대,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 쌀 소비 다각화와 대량 소비처 발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1일 현재 2008년 전남산 쌀 재고량은 지난해 2만9천t에 비해 4만8천t이 증가한 7만7천t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최근 전남산 쌀 2만2천t을 매입하면서 10만t에 가까웠던 재고물량이 7만t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수매해 비축해 놓은 공공비축미 물량도 ▲2005년

산 4만t ▲2006년산 11만3천814t ▲2007년산 9만9천845t ▲2008년산 9만9천810t으로 총 35만여t의 쌀이 전남지역 농협 창고 등에서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 공공비축미는 주정용 등으로 쓰인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전남지역 농협과 민간 RPC 58개소에서 쌓여있는 쌀 재고량은 총 41만2천t에 이른다. 여기에다 올해 수확한 햅쌀이 시중에 유통되고, 벼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쌀 창고마다 재고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남 쌀 예상 생산량은 이상기온과 집중 폭우 탓으로 지난해 90만1천t에 비해 5%가량이 줄어든 85만t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매년 15% 이상이 재고로 남는 점을 감안하면 13만t 이상이 재고로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실정으로 대규모 소비촉진이나 정부의 추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남지역 농협과 민간 RPC 창고는 재고 쌀로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우려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농협은 쌀 가공식품산업 적극 지원 등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쌀 재고량 소진을 위해 도 산하 공직자 쌀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1천915t을 판매했으며, 학교급식, 기업체 구내 식당 등 대량 소비처 발굴을 위해 ‘전남 쌀 관측단’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쌀 케이크·쌀 국수 등 쌀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와 도내 쌀 가공업체를 통한 전남 쌀 활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나섰고, 수출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농협도 추석 전 귀향객을 상대로 한 전남 쌀 홍보와 서울 등 수도권 소비자단체와 학교급식 사업자를 초청한 산지체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현재 각 시·군별 농협 창고에 재고 쌀과 정부 공공비축미를 비롯한 기타 농산물까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 벼 수매량까지 감안하면 농협 창고는 더 이상 채울 공간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심 위 파란 하늘

1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의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현장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고사을 조형물과 꽃밭 등을 둘러보고 있다. 녹색문화산업전은 오는 23일부터 5일간 열릴 예정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3대 축제 앞둔 광주시 ‘신종플루 고민’

수백억 투입 디자인비엔날레·광엑스포 등

가을철 확산 우려 속 성공 개최 대책 분주

신종플루 확산 속에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10~11월에 디자인비엔날레, 광주세계광엑스포, 광주김치문화축제 등 3대 행사를 치러야 하는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일단 이들 대회를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지만, 각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잇따라 회의를 갖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신종플루 확산 정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아직 미약한 편이나 이들 행사가 모두 전국·국제적인 규모로 치러지기 때문에 자칫 관람객 수가 급감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디자인비엔날레(9.18~11.4) 63억원,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10.9~11.5) 330억원, 광주김치문화축제(10.23~11.1) 25억원 등 이들 3대 행사의 투입됐거나 투입예정된 예산은 모두 418억원에 달한다. 예산 이외에도 이들 행사가 모두 장기간 준비돼 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들인 막대한 행정력도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행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관부서들은 지난 달 25일부터 잇따라 대책회의를 갖고, 국립목포검역소 출장소 설치,

관람객 전원 발열 상태 체크, 의료진 현장 배치, 세정이 설치 등의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모두 현재 미약한 수준의 신종플루 유행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만일 대유행에 따라 정부가 국가 재난단계를 ‘심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최근 “행정의 최대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경우 그 어떤 중요한 행사보다 시민 한 명의 안전과 목숨을 소중히 생각해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신종플루가 대유행이 아닌 현재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감염환자 수가 늘어날 경우에도 이들 행사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는 것이다. 전국적·국제적 행사인 이들 3대 행사에 장거리 이동을 기

피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의 방문이 줄어들고, 특히 주요 고객이 되는 학생층의 참가가 급감할 경우 힘들게 준비한 행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신종플루라는 ‘악초’를 만난 광주시가 이들 3대 행사를 어떻게 치러낼지 주목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門만 연 국회 첫날부터 파행

김형오 의장 “여야 특위구성 개헌안 마련해 달라”

국회는 1일 오후 정국회의 개최식을 갖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각종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일정 문제로 국회 전체가 파행, 지연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여야가 원칙적으로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조

속히 개헌특위를 구성, 정국회의 기간 내에 개헌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을 각각 갖고 의사일정 협상을 벌였으나 국정감사 시기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국회의는 개회 첫날부

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으며, 여야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공전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날 개회식에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의 미디어 관련법 직권 상정 처리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집단 퇴장, 9월 정국회의의 협로를 예고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